

제3회 총회교육 세미나

## 개혁주의 신앙교육과 고신총회 교육의 방향 모색

일시: 2020. 9. 29(화) 오후 2-4시  
장소: ZOOM을 통한 비대면 세미나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교육위원회

## 인사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교육위원과 전국교회와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서나 총회에서 교육이 참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기본적인 사명이었고, 제자들에게 맡긴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총회교육위원회는 2019년 제35회 총회에서 5년 동안 진행할 재미총회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봄에 시작된 COBVID-19사태로 말미암아 9월로 계획되었던 세미나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총회가 주최하는 교육대회를 계기로 해외동포 교육과 목회정책협의회를 모일 예정이었던 협의회가 취소되었고, 10월 초에 모임 총회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주셔서 함께 현장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ZOOM을 활용하여 제3회 총회교육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이에 익숙하지 못해 세미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의안을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세미나와 이후의 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3회 총회교육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를 잘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부탁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위원들과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안을 충분히 읽고 숙지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요약하여 20분씩 하고, 종합토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강의나 토론에서 실제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질문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발표에 못지 않게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 세미나에서 개교회 교육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그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총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준비하였던 총회교육 현황에 관련된 통계를 기초로 하고, 현장의 여러 제안들을 총회의 교육정책에 반영하면 실제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6회 총회기에는 재미총회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진지한 연구를 통해 총회나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개별교회가 힘써야 할 점들을 깊이 연구하여 제27회 총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가 총회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총회교육 세미나 준비위원

윤덕곤 나삼진 박사무엘

## 차례

인사말씀/준비위원

제3회 총회교육 세미나 계획

개회예배(10')/이민교회 교육(신명기 6:4-9)/윤덕곤 목사

세미나 1(20')/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적 흐름과 교육/나삼진 목사

세미나 2(30')/개혁주의 교회와 신앙교육/김성수 총장

세미나 3(20')/한인교회 차세대 교육/박대근 목사

세미나 4(20')/COVID-19이후의 교회교육/박 사무엘 목사

종합토의(30')/진행: 윤덕곤 목사 토론정리(10): 나삼진 목사

Join Zoom Meeting은 다음과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Time: Sep 29, 2020 02:00 PM Pacific Time (US and Canada)

<https://us02web.zoom.us/j/89826152184?pwd=R05wTXVmT3E4Vmsydk5tRlFjWFxBxQT09>

Meeting ID: 898 2615 2184

Passcode: kosin

### 제3회 총회교육 세미나 계획

일시: 2020. 9. 29(화) 오후 2-4:10(서부 태평양 시간)

방식: ZOOM을 통한 세미나

주제: 개혁주의 신앙교육과 고신총회 교육의 방향 모색

#### 세미나 계획 및 진행 시간표

개회예배(10')/이민교회 교육(신명기 6:4-9)/윤덕곤 목사

세미나 1(20')/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역사적 흐름과 교육/나삼진 목사

세미나 2(30')/개혁주의 교회와 신앙교육/김성수 총장

세미나 3(20')/한인교회 차세대 교육/박대근 목사

세미나 4(20')/COVID-19이후의 교회교육/박 사무엘 목사

종합토의(30')/진행: 윤덕곤 목사, 토론 정리: 나삼진 목사

#### Join Zoom Meeting 참여

zoom 미팅은 다음과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Time: Sep 29, 2020 02:00 PM Pacific Time (US and Canada)

<https://us02web.zoom.us/j/89826152184?pwd=R05wTXVmT3E4Vmsydk5tRlFjWFByQT09>

Meeting ID: 898 2615 2184

Passcode: kosin

##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적 흐름과 교육

나삼진 목사(오렌지카운티 샬롬교회)

총회교육위원회가 총회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재미총회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는 재미총회가 35년의 역사를 갖게 되면서 초기 지도자들이 현직에서 은퇴한지 오래되어 그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10년마다 역사를 편찬해 오고있어, 기본적인 사료들이 남아 있어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기에 용이하였다. 다른 하나는 재미총회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전국교회가 일관된 정책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현재적 위치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재미총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오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리하고, 그동안 재미총회의 교육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가를 정리함으로써, 재미총회 교육적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1. 재미총회의 형성과 발전

#### 1) 재미총회의 형성과정

재미총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고신교회의 신앙적 영향을 미주지역에서서도 계속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간헐적이었지만, 세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전쟁 후 고신교회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SFC운동이었다. 고신교회에서는 초기부터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강조되고 있었다. 해방 후 교회쇄신운동에 참여한 부모들의 회개운동을 곁에서 보면서 자랐던 학생들은 1948년 고려신학교 주최의 청소년수양회에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학생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닥불기도회, 고려신학교 주최 청소년 수양회, 한부선 선교사의 청년신앙운동이 하나가 되어 1952년 중앙학생신앙운동 전국대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을 지도하였던 한명동 목사가 기초한 학생신앙운동(SFC) 강령에서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의 가치를 들었다. 1953년 한국전쟁에 끝나고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시작하면서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 3인이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학생신앙운동의 추억을 따라 모이게 되었고, 이후 유학생들이 힘을 합쳐 SFC수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50년대에 방학에 수양회를 갖고, 회보를 간행하고, 한국교회에 소식을 보내었다. 둘째는 초기 교회 설립자들이 미국교회에 속한 가운데 고신교회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박재영 목사가 유학을 마치고 뉴저지제일한인장로교회를 개척하여 고신교회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고신교회가 설립되면서 독자적인 처리

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여러 갈래로 있었다.<sup>1)</sup> 1978년에 처음 고신교회 조직을 모색한 이래, 개혁주의선교회 조직(1978), 고신선교후원회 조직(1980), 고신교회 조직을 위한 서명작업(1982. 4), 고신교회 조직 발기회(1982. 8), 제1회 고신인모임 준비(1983. 10)등으로 이어졌고, 1983년에 제1회 고신인 모임(1983. 12)이 시작되어 그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1983년 10월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책임을 지고 학장직에서 물러났던 이근삼 박사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의 생일 축하를 겸한 고신인 모임을 펜실베니아주 포코노수양관에서 개최하고, 교단 조직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4년 봄에는 신현국 목사 미국집회를 계기로 이근삼, 신현국, 박재영, 김만우 목사가 모여 고신교단 조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고, 지역 책임자를 선정하였는데 손창호(남미), 신현국(미 서부), 김만우(미 동부) 김용출(캐나다)로 하여금 노회를 조직하도록 준비하고, 한국총회와의 관계는 신현국 목사가 담당하고, 이듬해 고신인모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1984년 11월 5일부터 이틀간 모인 고신인 모임에서 노회 조직을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고, 1985년 2월 4일 뉴욕 맨하탄에서 고신인사들이 회동해, 고신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포선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3개항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하였다. 개혁주의 고신순교신앙을 미주 교포사회에 선교하기 위하여 “북미고신총노회”(가칭) 발기, 총로회가 창립되면 한국총회와 자매관계를 맺고, 행정과 치리는 교포사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독자적인 헌법을 갖고, 이를 이근삼 박사가 한국총회와의 관계를 위임하며, 이 취지를 찬동하는 목사 7명, 장로 7명(그 가운데 절반은 교포교회 시무목회자와 시무장로)가 되면 창립조직회의를 갖도록 발기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다.<sup>2)</sup> 이 문서에 서명한 이들은 이근삼, 박재영, 김만우, 신현국, 김진경 등이었다.

## 2) 재미총회의 조직과 성장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5년 11월 11일부터 사흘간, 펜실베니아주 포코노수양관에서 개최된 총로회를 가졌다. 이때 창립멤버가 된 4교회와 고신출신 목회자 13명이 함께하여 수련회를 갖고<sup>3)</sup>, 이 자리에서 총노회를 조직, 박재영 목사를 총노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헌법 제정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조직을 완료하고, 규칙을 제정하였다. 재미고려신학교 설립을 위한 위원을 선정하였다.<sup>4)</sup>

재미총회는 조직과 함께 초기부터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했는데,<sup>5)</sup> 제2회 총노회에서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근삼 박사

1) 박재영, “재미 고신교단의 태동”, 재미총회 10년사, 서울: 총회출판국, 1995, 27-31.

2) 박재영, “두 번째 10년의 감사”, 재미총회 20년사(1985-2005), 서울: 총회출판국, 2005, 50-51.

3) 총로회 창립교회는 뉴저지제일한인교회(박재영), 산호세한인교회(신현국), 필라델피아초대교회(임종수), 템피교회(전재린) 등 네 교회였다.

4) 박재영, “재미고신의 과거”, 재미고신 30년사, 서울: 총회출판국, 2015, 21.

5) 박재영, “재미고신의 과거”, 재미고신 3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15, 19-20.; 초기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박재영, 전재린, 신현국, 김만우, 조성관, 김용출 목사 등이 기획위원으로 봉사하였

를 초빙하기로 하였고, 제4회 총회에서는 총노회를 동부노회와 서부노회로 분립하면서 총회로 승격되었다.<sup>6)</sup> 제6회 총회에서는 신학교 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1990년 9월에 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다미선교회의 종말론 열풍이 불 때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 교수를 초청하여 순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sup>7)</sup> 제8회 총회에서는 신학교 개교 준비와 함께 교장으로 박재영 목사를 선임하였다가, 1995년 이근삼 박사가 고신대총장을 정년퇴임함에 따라 그를 교장으로 청빙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이 뉴저지를 중심으로 수년간을 계속하다가 미주 한인들의 중심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고신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를 느껴 이근삼 박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이동하고, 동부와 서부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근삼 박사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에반젤리아대학교는 독립건물을 마련했고, 이제 설립 25주년을 맞았다.

## 2.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개황

### 1) 총회 산하 교회 현황

재미총회는 1985년 네 교회로 시작하여 초기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미주에 8개 노회 136교회로 성장하였다.<sup>8)</sup> 노회 단위로 남미노회(4교회), 동부노회(19교회), 북서노회(20교회), 서부노회(18교회), 서중노회(12교회), 수도노회(21교회), 중남부노회(23교회), 중부노회(19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직교회는 절반 이상이 미조직교회인 것은 아직도 미자립교회의 한계가 있고, 이는 교육을 위한 유급 지도자 배정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미총회는 지난 35년 동안 주로 총회 조직과 행정, 신학교육, 선교 분야에서 성장이 있었다.

### 2) 신학교육

재미총회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 1990년 9월에 뉴저지에서 재미고려신학교를 설치하고, 1993년 9월에는 서부고려신학교를 설립하여 목회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한국교회에서 다미선교회가 중심이 된 불 건전한 종말론 열풍이 불었는데, 이 시기에 재미고려신학교는 신학공개 강좌를 개최하였는데, 1991년 1월에 이근삼, 오병세, 홍반식 교수를 강사로,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뉴욕 등 4지역에서 1차로 개최하였고, 7월에는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와싱턴, 볼티모어 등에서 제2차로 개최하여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종말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고신교회의 신학과 정신을 새롭게

---

는데, 오랜 경험이 반영되어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소수의 위원이 총회의 임원 인선과 결의를 오랫동안 독점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재미총회 10년사, 40-41.

7) 제6회 총회 활요, 제7회 총회 활요, 재미총회 10년사, 125.

8) 재미고신총회 홈페이지의 교회주소록을 기준으로 했다. [www.kosinusa.org](http://www.kosinusa.org).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공개강좌는 1994년에 브라질에서, 1995년에는 시카고, 산호세, 로스엔젤레스, 휴스턴등 네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재미총회는 1995년에 Evangelia University를 설립하여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고,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두고, BA, MA, MDiv, DMin등의 학위과정을 두고 있다. MDiv과정은 한국어와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제35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김성수 총장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교육학박사(ED. D) 과정과 교육학석사(MACE) 과정을 개설했다.

### 3) 해외선교

재미총회는 초기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 중국, 일본, 남미, 중동 등으로 파송하여 해외 선교를 강화하고 있고, 점차 평신도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전문인 선교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진경 선교사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평양과학 기술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남미 아마존 지역에는 세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센터를 건설하여 삼국경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를 양성하고, 지역교회 개척에 힘쓰고 있다.

해외선교 분야에서 특기할 일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재미총회가 중심이 되어 1992년 8월 4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한인선교대회를 기해 세계선교협의회가 창립된 일이다. 재미총회는 한국총회와 협력하여 선교하기로 하고, 1988년에 한국총회와 재미총회가 고신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sup>9)</sup> 이러한 준비가 기초가 되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시카고에서 세계한인선교대회가 개최되었고, 제2차 한인세계선교회 때 재미총회 교회들이 힘을 합쳐 참가하는 선교사들의 항공료 등 경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이때 세계(고신)선교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한국총회와 재미총회, 대양주총회, 유럽총회가 협력하여 선교협력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0)</sup> 이때 제1회 고신선교대회가 시카고에서 함께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의 KPM의 고신세계선교대회가 된 것이다. 이처럼 재미총회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 고신세계선교대회의 기초를 놓았다. 둘째, 이러한 선교역량을 보며 재미총회의 선교정책이 준비되었다. 1993년 11월 22일에 모두 11개 항에 이르는 선교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재미총회의 선교정책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셋째, 한국총회 선교부(KPM)의 선교대회와 포럼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선교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 것이었다. 매 4년마다 개최하던 세계선교대회에 재미총회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선교대회 한 해 전에 모이는 선교정책을 다루는 선교포럼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2004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방콕에

9) 재미총회 20년사, 65-66.

10) 이때 참석한 대표단은 흥관표(대양주), 조병철(일본), 임종수, 김용출, 김만우, 박재영, 변의남(미국), 곽삼찬, 곽수권(한국), 황상호, 김대영(유럽)이었다. 세계(고신)선교협의회 창립총회 회의록, 1992. 8. 4. 선교사들의 증언: 제2차 세계선교대회 보고서, 대양주총노회, 1995.175-176.



서 있었던 선교포럼에 김만우, 박재영, 윤덕곤 등이, 2008년 6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선교포럼에 김만우, 황현조, 구자경 등 다수의 재미총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선교정책 수립을 위한 발표자와 토론자에 참여하였다.

#### 4) 학생신앙운동(SFC)

고신교회에서는 1947년부터 학생신앙운동(SFC)이 시작되어 오늘날 전국에 20,000명 정도의 회원을 갖는 학생운동으로 성장하였고, 이들을 위해 100여 명의 간사가 활동하는 조직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SFC동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수양회를 갖고 회보를 간행하는 등으로 활동해 왔고, 1970년대 말 뉴저지와 뉴욕을 중심으로 SFC 수양회를 개최해 왔다.<sup>11)</sup>

1980년대 중반 이후 로스엔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문회 회보를 간행하고 학생들의 신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89년 이후 수양회를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학생신앙운동은 재미총회 산하에 각 노회 단위로 일곱 지역으로 나뉘어져 매년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4년에 한 차례 전국SFC수양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방 수양회는 그 지역교회 학생들의 연합수양회로 100여 명씩 모이고 있으며, 매 4년마다 모이는 전국수양회는 400-500명 정도가 모이고 있다. 전임사역자가 없는 가운데 전국규모의 수양회 준비가 쉽지 않고, 장거리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이를 계속하여 개최하는 문제가 과제가 되고 있다. 전국수양회가 매년 지연되는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동안 재미SFC는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배출해 오고 있다.

### 3. 재미총회의 교육적인 노력

#### 1) 재미총회의 교육적인 노력

재미총회는 초기부터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교재개발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교회의 여건상 이러한 논의가 정책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제2회 총노회에서 교육부를 설치하였고, 제3회 총회에서 총회 기간 세미나 개최, 교역자와 평신도 수양회 개최, 교육사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갖기로 하였다. 제4회 총회에서는 주일학교 공과 연구, 분기별 '미주교신'(가칭) 회보 발행,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결의하였다. 제6회 총회에서는 미국 주일학교 교재 연구해 발표하기로 하고, 교육현황 조사하기로 하며, 한국총회 초청 교육프로그램을 교환할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않았다.<sup>12)</sup> 총회 설립 이후 첫 10년간은 총회의 기구적인 조직에 주력하였고, 교회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교육 관련 부서들과 관계된 중요한 결의는 다음과 같다.

11) 김만우, "미주지역 학생신앙운동 약사", 재미총회 10년사, 79-84.

12) 제6회 총회 활요, 재미총회 10년사, 124.

제11회(1995): 1) 회원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의 신앙증진과 자질향상을 위해 1년 1차 세미나를 노회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다.

2) 총회산하 목사, 장로, 연장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연 1차씩 총회기간 갖기로 하다.

제12회(1996): 총회 기간 동안 차세대 특강을 2시간 갖기로 하다.

제13회(1997): 각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육자료를 모집하여 교회에 보급하기로 가결하다. 21세기 교단 교육정책과 교단 홍보 자료를 제정하기로 가결하다.

제14회(1998): 교단산하 주일학교 교육의 일관성을 위하여 개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및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보도하기로 가결하다.

제15회(1999): 각교회 교육과정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하고, 주교교재를 검토하기로 하다.

제16회(2000): 시중에 나와있는 성경공부 커리큘럼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는데,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제18회 총회에서는 Great Commission 교재를 사용하기로 보고하였다.<sup>13)</sup> 그러나 전국 교회에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인 결의사항은 아니었다.

제17회(2001): 교육연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제20회(2004): 한국총회가 주관하는 해외동포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 참석과 경비를 허락해,<sup>14)</sup> 제1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에 재미총회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제21회(2005): 제2회 해외동포 신앙교육정책협의회를 재미총회 순서로 주관했다. 일시: 2006. 6. 12-13, 장소: Evangelia University, 강사: 이근삼 총장외 참석자: 재미총회 10명, 한국총회 10명, 해외총회 10명. 영어권 상임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차세대연구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다음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2006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Wheaton Collegr에서 제1회 SFC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22회(2006): 제3회 해외동포신앙교육정책협의회(2007년 6월, 한우리교회, NZ)에 참가하기로 하다. 영어부(EM)을 설치하고, 목사 고시와 강도사 고시를 위한 준비자료집 간행, 영어권 목회자들의 연락망 구성하고 SFC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영어권 교단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였다. 아프리카 SFC 조직 및 대회(2007년)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가 다음 총회 때 보고되지 않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제25회(2009): SFC 전국대회를 2011년에 개최하기로 하다. SFC대표간사로 장홍석 목사를 임명하다.

제26회(2010): 총회산하 주일학교를 위하여 고신총회의 교재와 미국에서 출판되는 교재들을 연구하여 교단 산하 교회들에게 교재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또 교단 산하 교회들의 제직세미나를 위하여 강사를 추천하여 연합집회를 갖도록 결의하였다.

제27회(2011): 한국총회(총회장 정근두, 교육원장 나삼진)와 재미총회(총회장 박종창, 교육위원장 박대근)의 '교육과 목회에 관한 미래협약'을 체결하고, 나삼진 목사의 특강을 가졌다.

제28회(2012): 2013년 4월에 차세대 목사 컴퍼런스를 열기로 하였다. SFC전국대회를 위하여 장로위원 7인을 증원하기로 하였으나 시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제30회(2014): 날로 증가해가는 가정문제 연구를 위해 가정사역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제31회(2015): 재미총회 교육현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교회교육 총조사'를 실시하기로

13) 제18회 총회 활요, 재미총회 20년사, 202.

14) 제18회 총회 활요, 재미총회 20년사, 224.

하고, 제33회 총회 교육포럼에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제32회(2016): 한국 총회교육원의 우수교재를 영어로 번안하여 출간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34회(2017): ‘다원주의 문화와 사회속에서의 목회와 교육’(강영안 교수)과 ‘재미고신총회의 교육 현황과 과제’(나삼진 목사)를 주제로 하여 총회 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5회(2018): 총회교육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총회에서 통과했다. 제1회 교회교육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재미총회 교육발전계획(2019-2024)을 제출, 승인을 받았다.

## 2) 총회 교육관련 기구 상황

재미총회의 기구적인 조직이 지난 30년 동안 체계적인 고려없이 회원의 제안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이런 현상은 총회의 교육관련 기구의 설치와 활동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위원회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고유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그 조직과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최근까지 상비부 가운데 교육관련 기구는 교육부와 영어부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세대간 차이, 혹은 사용 언어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는 모두 4개인데, SFC지도위원회는 SFC 지도를,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차세대연구위원회는 차세대에 관한 연구 업무를, 가정사역위원회는 가정사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sup>15)</sup> 그러나 이 가운데 매년 총회 때에 조직은 하지만 절반 이상의 위원회가 활동이 없고,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렇게 재미총회는 제한된 재정과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비부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총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목적에 따른 사역을 이끌어 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sup>16)</sup> 이에 2016년 서부노회의 헌의로 제32회 총회에서 재미총회의 기구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제33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을 개정 11기구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9개부, 15개 위원회 조직이 10개 상임위원회와 세 상설기관으로 통합, 조정되었다. 이로써 총회교육 관련기구는 교육부, 교육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이 통합되었고, 지금은 SFC와 영어부와 함께 각각의 역할에 따라 사역하고 있다.

## 3) 한국총회-재미총회의 교육협정

재미총회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총회와 세 차례의 교육관련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차 교육협정(1995)은 1995년에 재미총회장(박재영)이 한국을 방문해 총회교육위원장(김병원)과 교회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총회장 박재영 목사는 이를 근거로 뉴저지제일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재미성경통신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성경통신대학은 1995년 이후 수년 동안 운영하며 한국총회 교육위원회 대표간사를 초청하여 출석수업을 갖고, 졸업생도 다수 배출하였으나 이후 중단되었다.

제2차 교육협정(2002년)은 한국총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한석)와 2002년 Evangelia University (총장 이근삼)와 사이에 체결된 교육협약이다. 이 협약에서는 EU에 성경통신대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평신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총무처장 박대근 목사가 성경통

15)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16) 제32회 총회에서 서부노회의 헌의로 기구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회기 동안 연구 중에 있어, 제33회 총회에 연구 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신대학 지역순회세미나 강사로 봉사하고, 원장 나삼진 목사도 EU 여름학기 강의했으나, 처음 계획했던 EU 평신도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는 못했다.

제3차 교육협정(2012년)은 제27회 총회의 결의로 체결된 재미총회와 한국총회 사이에 '교육과 목회에 관한 미래 협약'이다. 이 교육협약은 교육의 본질적인 성격 규정, 양 총회 개발 교재의 공식적인 교재로 인정과 상호 사용, 교재개발의 국제적인 협력, 교육과 목회의 인적 교류, 지도자 교육과 교재 공급의 편의 제공,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의 공식 협의기관 확인 등 여섯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6월 6일 웨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당에서 개최된 제7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정책 협의회에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제27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석상에서 재미총회(총회장 박종창, 교육위원장 박대근)와 한국총회(총회장 정근두, 교육원장 나삼진)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재미총회는 이 협약에 따라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재미총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2012년 10월 15-16일에 로템장로교회당에서 개최하여 25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바이블키성경대학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제28회 총회 기간에는 총회교육위원회 주관으로 한국총회 교육원장 나삼진 박사가 '현대 기독교교육의 최근동향과 교육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인도하였다. 그동안 재미총회 산하 몇 교회에서 '복있는 사람'을 통한 말씀운동에 동참하였는데, 로템장로교회는 한때 나삼진 원장을 초청하여 큐티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복있는 사람》을 매월 300권 이상씩 사용하기도 했다. 한영대조 세례문답 교재가 출간되어 재미총회의 공식 교재로 채택되었다.

재미총회의 이러한 교육협정은 총회의 총의를 모아 실제적이고 유효한 전략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 중심으로 결정되고, 운영되어 총회 전체의 사역으로 확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금도 총회교육위원회는 해외동포교육과 목회정책협의회 참가하고, 총회에 보고서를 내는 정도이며, 총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재미총회 산하 교회에 '그랜드스토리'나 '한영대조 세례문답' 교재를 사용하거나, 《복있는 사람》 큐티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4. 맺는 말

지금까지 재미총회의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고, 그 과정에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폈다. 재미총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는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재정의 투입을 요구하는 교육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 안에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재미총회의 교회들의 열악한 교육 현실과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재미총회의 특성상 총회적인 교육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소론에서 살핀 바와 지난 수년 동안의 총회적인 논의의 내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재미총회 산하 교회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확인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와 목회자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회 기간 동안 교회의 교역자들을 통행하여 교육 세미나를 제공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훈련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2) 136개 교회 가운데 70% 이상이 70명 미만의 작은 교회인 것과 교회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신학적, 교육적 훈련을 거친 EM 사역자를 청빙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 내 헌신된 부모나 교사를 선발하여 전문적인 사역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이수하게 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재미총회는 총회적으로 매년 교회의 정확한 통계가 취합하고, 산하교회의 성도들의 출석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면밀히 실패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며 교회교육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재미총회 내에서 EU, 교육위원회, SFC, EM 등 관련기구들이 매년 연합하여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학문과 실재가 융합된 강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현장의 교육사례를 제시하여 위기에 선 재미총회와 한인교회의 교회교육 개선을 위한 연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노회 단위의 교육포럼을 개최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개선시켜주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재미총회 산하교회의 인력들을 조사하여 교육지도자협의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조직하여 개별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소개하고, 전문인력들이 총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한국 총회교육원에서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교육적 역량을 미국의 상황에 맞는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개혁주의 교회와 신앙교육

김성수 목사(Evangelia University 총장)

이 포럼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개관해 보면서 재미고신총회 산하 교회의 신앙교육에 주는 함의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sup>17)</sup>

개혁주의 전통은 크게 광의적인 의미와 협의적인 의미의 두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의적인 의미의 개혁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司祭主義)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사제란 금욕 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행하는 자들이다. 종교개혁의 신학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에 의해 점화되어진 반사제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루터는 종래까지는 단지 사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졌었던 소명(Berufen)의 개념을 전교인들에게로 확대하여 모두가 사제라는 소위 만인제사장설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사제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재해석하여 종래에는 특수한 계층의 신앙인들에게만 적용했던 것을 이제는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신학은 금욕 생활과 관련된 이른바 세상에 대한 관점, 성경과 관련된 계시에 대한 관점, 그리고 중보 기도와 관련된 교회관에 있어서 사제주의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을 주창하게 되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신학은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항상 관점을 같이 한 것이 아니었다. 에라스무스(Erasmus)의 영향을 받은 세르벤투스(Michael Servetus)와 소시니우스(Faustus Socinius)로 대표되는 합리주의적 전통, 토마스 뮌처(Thomas Muntzer)로 대표되는 영감주의적 전통, 루터교적 전통, 재세례파 전통(Anabaptist), 그리고 칼빈주의 전통(Calvinism)은 세상관, 성경관, 교회관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이면서도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중에서도 칼빈의 가르침에 많이 의존하는 신학이다. 협의적 의미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곧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 I.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의 특성

### 1.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개혁주의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도교회의 영역에 제한시키려고 한다. 이런

---

17) 이 글은 필자가 총회교육원 주최 2004년 교육대회에서 주제 발표한 “개혁주의 교육의 특색”이라는 원고를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입장은 하나님을 모든 삶과 학문의 주권자로서 보는 신앙교육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가르친다(롬 11:36).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홀로 주권자 되신 분이시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재(present reality)를 고백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적으로 미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교육보다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는 교회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잘못 분리하는 이원론적 교육의 오류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 실재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풀 타임(full-time)의 왕국 봉사를 하도록 요청하신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This is mine)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일 평방 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혁주의 원리는 교회의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권 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업, 정치, 과학, 예술, 의학, 연극 영화, 음악, 저널리즘, 그리고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풀 타임의 왕국 봉사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신앙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2. 창조-타락-구속의 우주적 이해

개혁주의 전통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포괄적이며 보편적, 우주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창조의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타락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 세계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철저히 영향을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타락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앨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표현대로 창조의 지평은 동시에 죄의 지평이며, 또한 구원의 지평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치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혹성들을 그 궤도에 두시고 계절들이 제 시간에 오가게 하시며, 씨가 자라고 동물들이 번식하게 하신다. 그러나 도구를 만들고 정의를 실행하며 예술품을 만들고 학문을 추구하는 일은 인간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의 법 지배는 비인

간적인 영역에서는 직접적이고, 문화와 사회의 영역에서는 매개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물체와 동식물 영역이 자연의 법과 문화와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법 곧 규범(norm)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신다.

개혁주의 전통이 강조하는 신앙교육의 한 기본 원리는 한편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우주의 구조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신비로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창조적 질서에 순응하고 사회와 문화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규범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문화 변혁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되 단순히 분리된 조각들로 가르치거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해답들을 성경에서 찾도록 하지 않고 삶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한다.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개혁주의의 위대한 원칙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창조 세계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빛을 제공해 주는 성경의 역할, 비유컨대 ‘광부의 전등’과 같은 성경의 역할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은 인간 타락의 영향이 철저하며 창조 세계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육한다. 그러나 동시에 죄는 창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것도 아니며, 창조와 일치하는 것도 아님을 가르친다. 요컨대 구조(structure)와 방향(direction)의 의미를 분명히 숙지하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구조란 창조의 질서 즉, 어떤 사물의 불변적 창조 구조, 혹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물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이란 죄와 구속의 질서 즉,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주의 구속과 회복을 지칭한다. 구조와 방향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육의 한 중요한 특징이다. 개혁주의 교육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은 창조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색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흔히들 우리는 ‘세상’을 단순히 속된 것, 허무한 것, 육적인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란 그리스도 밖에서 죄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지 예술, 정치, 학문, 언론, 사업, 교육 등과 같은 창조 질서의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전통은 그 구성원들이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는 교육에 전력을 경주한다. 개혁주의 전통의 이와 같은 교육적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인간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의 우주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개혁주의 교육의 특성은 죄와 구속의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 3. 성별(consecration)보다는 성화(sanctification)를 위한 교육

성화 즉 ‘거룩케 함’은 “죄로부터 해방시킴, 윤리적 부패로부터 깨끗케 함, 정하게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별은 일반적으로 단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기 위해 구별함, 헌납함, 헌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은 외적인 갱신을 의미하고 성화는 내적인 갱신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내적인 의미의 재생으로서의 성화를 강조한다. 월터스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성화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승리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창조를 죄로부터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이 정화시키는 행위, 거룩케 함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적으로 갱신하고 재생하는 과정이지 제도적인 교회와 교회의 예배 의식에 외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영’께서는 우리의 피조된 삶에 침투하셔서 가정, 사업, 예술, 정부 등의 내적인 작동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거룩한 생활의 의미를 삶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제한시키지 아니한다.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성수(聖水)를 뿌림으로써 성별할 수 있다고 본다.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것이 하나의 성례라고 선포함으로써, 혹은 교회 안에서 예식을 올림으로써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업과 결혼의 내적 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야의 왜곡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그것들의 독특한 본성을 따라 내부에서부터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사업에서는 경제적인 거룩이, 결혼에서는 결혼의 거룩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갱신시키는 힘은 ‘자연 세계’의 구조에 침투하여 그것을 내부로부터 성화시킨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은 성화와 성령의 사역을 신성하고 거룩한 영역에만 제한시키고 나머지 삶에는 오직 성별만을 강조하는 관점을 철저히 거부한다. 개혁주의 교육의 특성은 단지 예배 행위의 맥락에서만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단면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내적 갱신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강조한다. 신약의 거룩은 예배 의식에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전 영역의 특징을 이룬다. 사적인 삶이든 공적인 삶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문화적인 삶이든, 모든 삶이 원칙적으로 성화될 수 있으며 내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개혁주의 교육은 이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힘이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 4. 언약 사상과 신자 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개혁주의 세계관은 신자 부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세우리니” 라

고 하셨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covenant promises)을 들어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의 특성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혼신으로 사랑하고, 자신들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언약적 의무(covenant obligations)에 관해서 가르치고 배울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성경적 관점을 강조한다. 부모들의 세계관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위임된 것이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라는 명령은 처음부터 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주어졌다(신 6:4-9). 개혁주의 교회는 교사와 학교가 결코 부모와 가정의 대리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며, 교사와 학교는 어디까지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교육의 일부 영역을 교회나 학교라는 기관에 위임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면제받았다는 의미는 되지 못한다. 개혁주의 교회의 교육은 자녀에 대한 교육적 권리와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어있는 숭고한 사명임을 강조한다.

## 5. ‘마음’(heart)을 구비시키는 교육

개혁주의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마음’(heart)을 구비시키는 일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사상의 원천이며 활동과 생활의 근원이다.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는 것을 결정해 주는 ‘종교’가 위치하는 자리 곧 종교의 좌소이다.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은 그 종교적 방향에 있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인간은 본질상 종교적 존재(religious being)이다.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의 삶이 본질상 배후에 추진력(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향이 있고 섬기는 경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나타나든지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형태로 행사된다. 인간은 자신의 총체적 자아를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봉사하든지 아니면 우상에 대한 경배로 봉사한다는 점에서 중립적 영역을 인간 생활에서 결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은 결코 주지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구비되어 모든 생각과 행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지향해야 한다. 피교육자의 ‘마음’이 신앙교육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하나님에게로 열려지게 되면 그의 다른 모든 기능과 재능들, 관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와 같은 신앙적 기능(faith function)을 ‘하늘로 향하는 창문’(window towards heaven)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6.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교육의 강조

개혁주의 교회의 생명은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이나 나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 사도들이 물려준 바를 그대로 고백하고 전승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 구성원들의 감정적 연대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연합되는 내적 결속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는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성자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개혁주의 교회는 구속사적 맥락(Redemptive Historical Context)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월터스(Albert Wolters)와 같이 창조(creation)-타락(fall into sin)-구속(redemption through Jesus Christ), 또는 마이클 고헨(Michael Goheen)과 바르톨로뮤(Craig G. Bartholomew)의 경우 “6막 4장의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은 성경을 고립된 단편적인 지식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구속역사와 교회의 선교적 소명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시편 기자의 표현과 같이 인간 삶을 조망하는 교육으로 나타나야 한다.

개혁주의 전통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칼빈(John Calvin) 역시 기록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 “바라보는 사람들”(spectators)이다. 저기에 “바라볼 광경”(spectacle)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안경”(spectacles)인 성경이 있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의 특성은 바라보는 사람들인 우리의 아동들에게 말씀의 안경을 맞추어 주어서 그들이 바라볼 광경 곧 하나님의 세계를 보다 올바르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중심성(centrality)이라는 개혁주의 원리는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의 특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핵심적인 열쇠와도 같다.

## II.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에 대한 반성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부단히 개혁해 가는 교회”라는 원리는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의 신

양 교육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반성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성찰은 특히 Post Covid-19 상황의 신앙교육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문화 명령과 초청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은 지금까지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과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을 많이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기초는 창세기 1:28절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문화 명령에 대한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는 경건주의자들에 대한 칼빈주의 전통의 반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교육은 이것을 단순히 문화 명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개혁주의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폴프(Nicholas Wolterstorff)는 오래전에 이미 이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월터스토폴프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첫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말씀 뒤에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명령의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해석이다. 축복을 언급한 후에 축복의 내용은 전혀 없고, 명령의 내용은 있지만 명령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해석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와 공중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간의 놀라운 병행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창 1:21-22).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축복이다. 이 말씀은 명령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병행구를 고려해 볼 때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는 것이 더 정당하다는 것이 월터스토폴프의 관점이다.

문화 명령을 단순히 명령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문화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승리주의’나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 2. '법에 대한 순종'이나 '감사에서 우리나라오는 순종'이나?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의 또 다른 반성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미덕을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것이다. 개혁주의 전통은 다른 어떤 전통보다도 '법 부여자로서의 하나님'(the image of God as lawgiver)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God's Law Word)이라는 말에서 '말씀'(word)이라는 단어에다 추가된 '법'(law)이라는 단어가 군더기와 같은 중복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어떤 신적인 말씀도 법(law)외의 다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순종(obedience)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보다 감사에서 우리나라오는 순종을 강조한다. 감사가 순종의 행위라기보다는 순종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모르는 무책임자가 되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인 에토스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 역시 순종을 감사의 표현 방법으로 보았다. 우리는 경외와 감사를 하도록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종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와 감사를 통해서 순종적인 행동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외와 감사는 순종보다 더 심오한 활동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가장 아름다운 무대에서 나타나고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경건한 즐거움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서 경건한 감사의 환경(맥락)을 조성해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5-17)고 말하고 있다.

## 3. 소홀히 했던 샬롬(shalom)을 위한 교육

문화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개혁주의 교육 정작 하나님의 관심인 샬롬을 위한 교육에는 소홀하였다. 문화 변혁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베풀면서도 인간이 겪고 있는 억압(oppression)과 박탈(deprivation)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월터스토포의 지적과 같이 개혁주의 교육은 인간 존재

의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으며, 애통(lament)의 성경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항상 자연과 인간 번성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에 의해서 형성된다. 성경적 이야기와 선포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번성에 대한 비전은 성경 저자들이 샬롬(shalom)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문화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아와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조화와 기쁨이다. 샬롬은 본질상 관계적이며, 또한 다차원적 관계이다. 월터스토프는 샬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샬롬에 있어서 정의(justice)의 역할을 강조한다. 공동체에 부정의(injustice)가 있는 한 그 공동체에는 샬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교육은 문화 명령과 더불어 씨름하는 동시에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보여주는 샬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개혁주의 교육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구비시켜주는 것을 특성으로 삼는다면 그 교육은 결코 고통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월터스토프는 개혁주의 교육이란 단지 발전(development)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교육은 또한 치유와 화목을 위해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육은 성경적 샬롬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특성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은 창조 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과 우리의 제 관계에 있어서 역기능을 치유하기 위한 활동의 형태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샬롬의 도래를 위해 간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샬롬의 대행자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하며 효율적이지 못한 대행자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샬롬의 통치의 도래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이 샬롬을 실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prayerful waiting) 차원을 요구한다. 그래서 샬롬이 우리의 길로 올 때 이 샬롬을 축하하고(celebrate) 향유할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그리고 샬롬이 없는 곳을 발견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샬롬의 없음을 애통해 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부셔지고 왜곡된 관계의 치유를 위한 투쟁은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애통이 나타날 때만 진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인교회 차세대 교육

박대근 목사

(International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CoronaVirus**로 인한 **Pendemic** 상황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 뿐만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생활에도 엄청나고 거센 파고를 몰고왔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들의 교육과 학교생활에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가져왔고 여기에 교회교육도 우선은 회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Zoom** 혹은 **Online** 예배와 활동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총회는 장년부 교육 뿐만 아니라 교단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차세대교육 혹은 교회교육에 대해 정말로 깊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할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 1. 오늘의 한인교회 차세대 교육 현실

이미 우리는 교회 내 청소년들의 **Silent Exodus**라는 용어를 들은 지 10년이 넘고 이 용어에 대해 익숙해져 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영어부 사역(**EM**)은 유치 유년 중고등부 교육을 받았다는 우리 자녀가 한인교회를 떠나서 이 ‘소리 없는 탈출’ [**Helen Lee**가 1996년 **Christianity Today** 기독교 학술지에 올린 글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그 이후 2세 자녀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보편적 용어가 됨]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멀지 않아 우리 차세대 자녀들은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떠돌이가 되고 말 것이다. 어릴 적 추억이 남아있는 돌아갈 **Home Church**가 없는 불쌍한 세대가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 한인교회들 혹은 교단들 중에서 이를 직시하고 이에 대해 현저한 대책을 강구한 교회나 교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 마음이 답답하다. 여기에는 우리 교단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1) 지금의 추세는 교회의 유년주일학교 혹은 **Youth group**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한인교회도 유년부 주일학교 혹은 **Youth group**이 없는 교회도 존재할 만큼 한인교회의 차세대 숫자가 현저히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전히 1세대 목회자들에게는 교회내 차세대 교육기관이 여러 기관 중에 하나로 생각할 뿐 아니라 말

로는 차세대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나 지원이나 지도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여기에 청년 **group**의 이탈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Kevin Hass**가 한 교육보고서에서 밝힌 바 대로 청년 **Group**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한국문화만을 고집하는 1세대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다민족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민족 친구들을 한인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좋은 **EM**을 찾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영적인 면에 흥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 점에 늦지마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세대 목회자들도 차세대를 위해 100배의 노력을 감당해야 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목회에 새로운 **Paradigm**을 설정해야만 한다.

(3) 노령화 되어 가는 성도층이다.

교회도 고령화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이것이 비단 우리 한인교회만의 추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들마다 유년층 혹은 청년층 보다는 노년층이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와 교단은 이를 대비해 심각한 수준의 관심과 구체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2. 재미총회 교육적 노력들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적으로 영어부 사역(**EM**)이나 **Program**들이 한인교회 혹은 우리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어 사역[**English Ministry**]에도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민 한인교회와 특히 우리 교단이 진정 필요로 하는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이라면 당연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교육이 돼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도록 해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인 이민교회는 영어권 교역자에게 영어가 더 편한 한인 2세 자녀의 영혼을 맡겼다. 한국문화, 언어, 정체성보다 영적 필요를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 한인교회 미래를 위해, 차세대 자녀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이민 가정문제를 위해, 미국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앙적 정체성과 **Korean-American**이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다.

본인은 우리 교단 **SFC** 동부와 서부지역 간사 또는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여러 해를 섬기면서 교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차세대 교육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생각했지만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인적, 재정적 격려와 후원의 부족으로 이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재미총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총회교육위원회와 차세대교육위원회와 SFC 활동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교단 차세대교육을 위한 연구와 방향과 미래에 대한 연구에 진력해 왔다.

총회교육위원회는 국제적 모임과 국내적 모임들을 통하여 꾸준하게 교단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차세대 교육을 위한 교재 발행 혹은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단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애를 써왔고, 차세대교육위원회도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독려와 함께 차세대교육 및 교단 교회의 **English Ministry**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SFC** 역시 어렵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재정적, 인적 격려와 지원의 결핍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근간에 와서 다시 회복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필자의 개인적 신념으로는 **SFC**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허락하신 보물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SFC**를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셔서 여러 분야에 봉사케 하셨음을 감사드린다. 우리 교단을 섬기는 목회자들 가운데 **SFC** 출신들이 많고 미국 유명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는 **SFC** 출신도 있고, 선교사 혹은 군목으로 사역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로, 교육계에서, 의료계에서, 혹은 다방면에서 인정받는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이들도 여럿이 있다.

이제 다시 우리 총회가 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의 귀하고 출중한 그릇들로 쓰임받도록 세우고 격려할 필요가 절실하고, 이들을 이끌어갈 확실한 책임있고 영성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교단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시급하다. 청년이 없는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범교단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 교단 산하 교회들이 총회가 결정한 일에 솔선수범 헌신할 때에 우리 교단이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근년에 들어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여러분의 교육전문가들이 교단 내에서 섬기게 된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희망적이라고 본다. 한국 교단 총회 교육위원장으로 30년 가까이 봉사하다가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현재 우리 교단 총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서부노회에서 섬기고 있는 나삼진박사는 교회 교육의 학적인 실력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적인 경험과 연구의 교육 전문가이고, 특별히 금년 초 **Evangelia University** 총장으로 부임한 김성수박사 역시 교육학 박사로서 오랜 동안 기독교교육의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전문가로서 우리 교단신학교에서 봉사케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인적자원을 허락하셨다. 이외에도 미국 신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들이 교단 내에서 활동하게 됨으로 상당한 수준의 인적자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볼 때에 이제부터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소신껏 교단교육의 미래와 정책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범교단적인 기도와 격려와 지원과 투자가

있어진다면 우리 교단 차세대교육과 교회교육의 미래와 전망은 밝다고 확신한다.

목회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고 성경공부가 중요하고 개 교회의 부흥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단과 교회를 이어갈 차세대를 키우는 일만큼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 이같은 점에서 교단의 중요한 교육 정책가운데 하나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영성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목회자와 선교사와 지도자와 사역자를 힘써 발굴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많은 눈물과 물심양면의 협력과 투자와 열정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한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땀을 쏟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희생을 감당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런 자세와 범교단적인 기도와 지원과 투자가 있어질 때에 우리 교단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 4. 교단 교회 교육의 미래와 기대를 말한다.

범교단적으로 **Post-Covinal9**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 목회와 예배와 교육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직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시말해서 **Zoom** 시대, **4차** 혁명 시대, **Online** 시대를 대비한 범교단적 연구와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 프린팅과 융복합, 생명공학과 바이오 등 핵심적인 과학기술이 학습과정에 그대로 적용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변화하는 방향과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 작금의 교육 방식과 패러다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너무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학교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하는데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생각하는 힘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협업·소통형 인재 양성, 코딩 및 디지털 교육 강화, 자가 고용과 창업, 창작 능력을 고양하고 기술발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일자리를 둘러싼 급속한 변화에 대응력을 배양, 경력자 대상 창업 역량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의 기술적 기반 강화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Education Technology**) 산업 활용,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활성화 등이 범교단적으로 연구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만일 우리 교단이 계속적으로 외적이고 조직적인 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교단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교단 목회와 교육의 현실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앞장 서서 성경적 교육에 더욱 전심전력하여야 하며, 겸손히 무릎을 조아리는 기도의 불길을 다시 돋우어야 하며,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하여준 바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정신과 순교 신앙의 의미와 적용을 다

시 살펴 성도들과 차세대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일찌기 미국으로 이민와서 우리 재미총회가 창립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두서너 현직 동역자 중 한사람으로,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3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세대로서 교단과 교단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치 못했던 아쉬움들이 많아 송구할 뿐이다.

한국 기독교학술원 원장 김영한박사는 “한국교회 차세대 기독교 교육의 실패는 차세대의 신앙교육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 위기는 단편적이 아니라 총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 위기의 원인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사조, 사회, 문화 현상, 학교, 교회, 가정 등 교육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시류(時流)에 휩쓸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를 교육생태계의 파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이 내면화되지 않고 외면적으로 주입,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분리, 시류에 편성하여 인기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생명력 상실, 문화명령 및 대위임령과의 유기적 관련성 상실, 연속성 상실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 한인교회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이제는 정치적인 논쟁이나 현실적인 이상이나 체험을 넘어 이민교회와 우리 교단 미래를 위해, 우리 교단을 이어갈 차세대 영성과 개인 개발을 위해, 이민가정을 위해, 사회생활 적응과 넓은 기회를 위해 우리 교단 교육 정책이 학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 21세기 기독교 교육의 미래방향

Rev. Samuel Park, PhD

(Associate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Central Seminary)

### I. Changes in future education 미래교육에서의 변화

#### 1.1.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지금 알고리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사고,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고 있다. 조만간 모든 걸음과 숨결, 심장박동까지 모니터할 것이다. 빅데이터와 기계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은 우리를 점점 더 잘 알게 된다. 그리하여 이 알고리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게 되면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발 하라리)

#### 1.2. 21세기의 변화와 코비드19의 충격

21세기 인간문명의 방향	코비드19의 충격
기계화 (Mechanization) - 기계와 정보의 융합	기계화 가속
도시화 (Urbanization) - 대중적 집단형성과 화려한 문명도시	도시화 속도조절
세계화 (Globalization) - 전 지구적, 우주적 진보	세계화 대안 모색
세속화 (Secularization) - 탈종교적, 탈기독교적 이념과 영성	세속화 지속

#### 1.3. COVID19 시대

혹 다가온 것	부재한 것	중요한 것	FDC미래의 방향성은 공동체와 함께
불확실성 Uncertainty	공감대	공동체	UCC 공동체의 공감/연대로 불확실성을 줄여라
변화	Consensus	Community	CDL 변화의 방향성을 잡아나
Change	Direction	Leadership	갈 리더십을 만들라
미래	비전	통찰	FVI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통찰력을 키우라
Future	Vision	Insight	UDI 불확실성 시대에 등대와
UCF 불확실한 미래의 변화가 혹 다가왔다	CDV 비전이 없이 공감할 방향성을 잃었다	CLI 통찰력 있는 지도력을 가진 공동체가 중요하다	같은 방향성은 통찰력으로부터 나온다

#### 1.4. COVID19이 주는 속제

가속화	강화	기회	과제
불확실성	폐쇄성	개방성	확고한 근거
변화	(국경, 자국, 차별)		기델 언덕?
인간 세계가 지향할 이	초연결성	공동체성	Grand Narrative?
념/이상에 대한 위기	(사람, 정보, 물체, 장소)		
기술문명의 발전과 의존	초현실성	진실성	기독교
성	가상성/피상성		교회는?
미래에 대한 불안	중속성	주체성, 독특성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2.1. 기독교/교회/신학의 위치와 역할

권위의 상실 - 신, 절대자의 명령  
 규범 - 사회적 법률, 결속력 강화  
 가치 - 덕목, 선악의 기준  
 영역 - 법, 교육, 예술, 정신적 위안...  
 중심에서 변방으로 / 기득권에서 약자로  
 남은 것?  
 본질?

#### 2.2. 변화에 대한 3가지 교육적 접근

- 1) 답습 - 과거의 전통과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도록 가르침
- 2) 적응 - 현재의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현실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침
- 3) 변혁 -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통찰하고 진리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고 선도해 가도록 가르침

#### 2.3. 사회변화를 따라잡기

기업 - 시속 100mi 속도로 혁신  
 정부와 관료조직 - 시속 30mi 속도  
 학교와 교육 - 시속 10mi 속도  
 교회와 교회교육?? -  
 “학교는 언제나 변화 후의 세상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다.”

#### 2.4. 미래교육의 방향과 기독교 교육

- 1) 정보 전달이나 새로운 지식 습득, 기술적 기량 전달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 정보 이해하고 식별하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지식을 통찰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안목, 능력이 필요

- 2) 변화의 흐름을 읽는 능력,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움 장착 (ex. Ford)
- 3) 메타인지, 창의성, 인사이트 - “해답이 간단할 때는 신이 답하고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 4) 문명의 이기 (온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활성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미네르바스쿨)
- 5) 삶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 정체성 찾는 교육
- 6) 변화하는 시대에 “강한 정신적 탄력성과 풍부한 감정적 균형감” (하라리, 398) - 변화에 대처하며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정신적 탄력성과 풍부한 감정적 균형감 필요
- 7) 영성 교육 - 인공지능을 넘볼 수 없는 영성에 대한 계발,
- 8) 성경의 인문학적 힘

### 3.1, 4Cs for 21 century education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창의성

### 3.2. 21세기 교육의 4C's

- 1) 비판적 사고 -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고 주제들을 통합, 연결하는 능력 (규칙, 습관, 규범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연역적, 귀납적 사고를 사용하는 능력, 복잡한 체계를 분석하며 어떻게 상호연결된 부분들이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분석하는 능력, 관점을 명료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질문을 하는 능력, 적절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며 신뢰할 만한 대안을 결정하는 능력)
- 2) 소통 - 자신들의 생각, 질문, 아이디어, 해결책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능력 (디지털미디어 사용하여 소통하는 능력)
- 3) 협업 -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달란트, 전문성, 지식을 활용하여 함께 협력하는 능력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는 능력,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연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 공감된 목표를 향해 일하기 위해 팀 멤버로서 책임감을 나타내는 능력)
- 4) 창의성 -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혁신과 창조를 이끌어내는 능력, 새롭고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능력 (브레인스토밍,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일으킬 분야에 가시적이고 유용한 공헌을 하는 능력) (innovation, original ideas, risk-taking)

## II. 4C's in Christian education 교회교육의 4C's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4.1. 예수님의 4C's

비판적 사고

창의성

대화

협업

### 4.2. 예수님의 비판적 사고

산상수훈 속에 담긴 비판적 사고

구약/십계명에 대한 재해석

결혼/이혼에 대한 재해석

안식일에 대한 재해석

종교지도자들과의 논쟁

### 4.3. 예수님의 창의적 가르침 - 비유 Creativity 1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13:34-35)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 13:51-52)

### 4.4. 예수님의 창의적 가르침 - 표적 Creativity 2

오병이어의 표적 - 생명의 떡 (요6:1-59)

실로암 개안 표적 - 세상의 빛 (요9:1-7)

나사로의 부활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11:1-44)

### 4.5. 예수님의 대화식 가르침 - Communication

예수님의 질문 -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16:13)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15)

비유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과 대답 (마18:21-35)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3:1-21)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요4:1-42)

#### 4.6. 예수님의 협력적 가르침 - Collaboration

12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치심

전도여행 - 12의 협업 (마10:2-15) 70인을 둘 씩 짝 지은 35팀의 협업 (눅10:1-24)과 디브리핑 (막6:30, 눅10:17-24)

오병이어 기적의 협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 칠병이어 (막8:1-13)

#### 4.7. 예수님의 4Cs 종합

부자 청년과의 대화 (마19:13-30)

1) 대화로 가르치심

2)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 -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실제적인 삶과 실행, 이웃사랑)

3) 낙타 바늘귀로 통한 창의적 가르침

4) 제자들 그룹과 협력적 가르침

#### 5.1. 기독교 교육에서 4C's 사례

마5:38-41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왼뺨, 속옷-겉옷, 오리-십리 등)에 대한 실천적 이해

예수님의 방법 - 갈등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 제시

도피-투쟁의 이원적 극단을 넘어서는 갈등/폭력에 대처하는 새로운 대안

#### 5.2. 예수의 제3의 길: 비폭력 저항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 기독교적 비폭력 저항 정신으로 해석 (Wink)

악에 대응하는 3가지 방법:

1) 수동적 - 온순하게 복종 (docility)

2) 폭력적 - 힘에 힘으로 맞대응 (violent opposition)

3) 예수님의 제3의 길 - 비폭력 저항 (nonviolent resistance): “to fight evil with all of our power without being transformed into the very evil fight” (189). We must not become what we hate.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5리 가게 하거든 10리를 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 5.3. 교회교육의 모델

교회의 주입식 교육 - 성경암송, 설교, 성경공부, QT

유대인들의 대화식 교육 - 하브루타 (Meta-cognitive education)

예수님의 어린시절 문답 -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눅2:46-47) - 12살 때 아마도 3일동안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 공부하며 비판적 사고가 돋보였음.

### 5.4.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포스트코로나시대 기독교 교육

- 1) Beyond Sunday Education 주일을 넘어선 교육
- 2) Hybrid Education 현장과 온라인의 융합 교육
- 3) Customized Education 개별화된 교육
- 4) Missional Education 선교적 교육